

『韋生傳』 작자 고증

박 희 병*

1. 머리말
2. 『위생전』의 작자를 成略로 보는 근거
 - 1) 『운영전』과의 관련
 - 2) 『石田遺稿』와의 관련
3. 『위생전』의 창작 동기와 소설사적 계보
4. 맺음말

1. 머리말

『韋生傳』은 임형택이 처음 소개한 『韋敬天傳』을 말한다. 이후 네 개의 이본이 발견되었으니, 저초본, 유재영본, 국역본, 간호윤본이 그것이다.¹⁾ 이 네 개의 이본에는 題名이 모두 ‘위생전’으로 되어 있다. 일찍이 정명기는 ‘韋敬天傳’이라는 제명에서 ‘敬天’은 字인데²⁾ 고전소설의 제명에 자가 들어가는 경우는 없다는 점과 이 작품 외의 이본들에서는 제명이 ‘韋生傳’으로 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이 작품을 대표하는 명칭은 ‘위생전’으로 통일해서 사용할 것을 제창”했다.³⁾ 필자는 이 주장이 합당하다고 여기므로 앞으로 이 작품을 ‘위생전’이라 부르고, ‘위경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1) 이 점은 간호윤, 2007 『『閔汨董』所載『韋生傳』 연구』 『고전문학과교육』 14 참조.
- 2) 이름은 ‘岳’이다. 그러니 자는 ‘敬天’이 아니라 ‘擎天’이 되어야 한다. 『위경천전』에는 오기가 많은데 제목의 ‘敬’자 역시 오기로 보인다. 저초본, 간호윤본에는 ‘擎’으로 되어 있다.
- 3) 정명기, 2006 『『위생전』(『위경천전(韋敬天傳)』) 교감의 문제점』 『古小說 研究』 22, 67면 각주 1번.

천전'은 '위생전'의 한 이본 명칭으로 간주하고자 한다.

『위생전』의 작자에 대해서는 종래 권필이라는 설과 권필이 아니라는 설이 대립되어 있다. 『위경천전』을 학계에 처음 소개한 임형택은 이 작품의 제목 아래에 “權石洲製”라고 적혀 있지만 “민간 잡서의 기록은 대개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⁴⁾며, 그 ‘문장 표현’이나 ‘사건 구성’의 솜씨로 볼 때 동일인의 필치가 아닌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위생전』의 작자는 『주생전』을 읽고 자극을 받아서 『위생전』을 썼으며, 그 창작 시기는 『주생전』이 창작된 1593년으로부터 그리 멀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이와 함께, 비록 『위생전』이 “『주생전』에 비하면 下手의 필치요, 『이생규장전』에 비하면 긴장감이 떨어지고 있”⁵⁾지만, “속류적 인생 태도에 대한 저항 정신이 투명하여, 『주생전』이 못 가진 비극적 갈등을 살려내고 있는바 『이생규장전』을 정통으로 이은 성과로 평가”⁶⁾된다고 했다.

이와 달리 정민은 『위생전』은 “석주의 작품이 분명하다”⁷⁾고 보았다. “무명씨가 창작한 것이라면, 차라리 작자를 밝히지 않은 채 전하면 전했지, 애써 창작해 놓고 굳이 석주의 이름을 빌려 세상에 전했다”⁸⁾고 보기는 어려우며, “구성원리와 문학적 의미 부분”⁹⁾이 『위생전』이 권필의 작품임을 잘 말해주고 있다고 했다. 이처럼 정민은 두 작품이 “창작 원리나 의식면에서 한 사람의 솜씨로 이루어져 있다”¹⁰⁾고 보고 있으며, 권필이 “전란으로 인한 사랑의 비극적 좌절과 전쟁이 가져다 준 인간 정신의 황폐성을 고발하기 위해” 먼저 『위생전』을 짓고 나중에 『주생전』을 지은 것으로 보고 있다.¹¹⁾ 문범두, 정병호는 정민의 주장에 따르면 보고 있다.¹²⁾

4) 임형택, 1992 『전기소설의 연애주제와 『위경천전』』 『동양학』 22, 33면.

5) 위의 논문, 36면.

6) 같은 논문, 같은 곳.

7) 鄭珉, 1994 『『韋敬天傳』의 낭만적 悲劇性』 『동아시아문화연구』 24.

8) 위의 논문, 286면.

9) 위의 논문, 290면.

10) 위의 논문, 284면.

11) 위의 논문, 291-292면.

12) 문범두, 1995 『『위경천전』에 대하여』 『韓民族語文學』 28; 정병호, 1995 『『주생전』과 『위경천전』의 비교 고찰』 『古小說研究』 6.

박희병은 「위생전」이 권필의 작이라고 주장하는 연구자들이 제시한 논거들 가운데 적실한 것은 없다고 보았다. 그리고 「위경천전」의 제명 아래 표기된 '權石洲製'라는 말만 갖고 “누군가가 이 작품을 지어 권필에 가탁했다고 쉽게 단정할 일은 아니다”¹³⁾라면서 임형택의 주장에 공감을 표했다.

김일근은 「주생전」과 「위생전」이 諺解된 連綴本을 학계에 새로 소개한바, “종래 「주생전」의 작자는 권필로 인정을 했으나 「위경천전」(「위생전」)의 언해가 同本으로 연철됨은 동일 작자임을 설명하는 것”¹⁴⁾이라며 “「위경천전」의 원명은 '위생전'일 가능성이 있고, 그 작자가 권필임이 판명”¹⁵⁾되었다고 했다.

이상, 「위생전」의 작자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을 살펴보았다. 얼핏 보면 김일근이 「위생전」 작자 문제 논란에 중지부를 찍은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곰곰이 따져 보면 그렇지 않다. 두 작품을 국역해 연철해 놓았다는 것이 두 작품의 작자가 동일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두 작품은 임진왜란을 시대적 배경으로 삼고 있고 지리적 배경도 겹치고 남녀의 연애사를 골자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마치 자매편 같은 느낌을 준다. 번역자는 바로 이 점에 주목하고 흥미를 느껴 두 작품을 함께 번역해 하나의 책으로 묶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정민은 「위생전」이 '문학적 의미'와 '의식'에 있어 「주생전」과 통하며 따라서 「주생전」을 쓴 권필의 손에서 나온 것으로 보았지만, 「위생전」과 「주생전」의 의미와 의식이 한 작가의 것이라는 주장은 수공하기 어렵다. 그 연장선상에서, 권필이 두 작품을 “전란으로 인한 사랑의 비극적 좌절과 전쟁이 가져다 준 인간 정신의 황폐성을 고발하기 위해”¹⁶⁾ 썼다고 한 것 역시 수공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연구사 검토는 이 정도로 그치고, 두 소설이 한 작가의 작품일 수 없는 이유를 이하 조금 언급하기로 한다. 유감스럽게도 '작품 밖'의 자료를 통해 그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실정이나 '작품 안'에서 그 이유를 찾기로 한다. 그러므로 합리

13) 박희병, 1997 「전기소설의 문제」 『한국전기소설의 미학』, 돌베개, 29면.

14) 김일근, 2000 「『周生傳』과 『韋敬天傳』 諺解의 連綴本(주생전·위생전) 出現에 따른 書誌的 問題」 『겨레어문학』 25, 256면.

15) 같은 논문, 같은 곳.

16) 鄭珉, 앞의 논문, 291면.

적 추론과 미적 판단이 대단히 중요해진다. 합리적 추론과 미적 판단이 제대로 뒷받침되기만 한다면 ‘작품 안’에서 발견되는 논거가 ‘작품 밖’에서 발견되는 논거보다 꼭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첫째, 사랑의 의미관련에서.

『주생전』이든 『위생전』이든 남녀 주인공은 모두 욕망을 좇는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무릇 애정 전기소설의 남녀 주인공 치고 욕망을 좇지 않는 인물은 없다. 이는 비단 애정 전기소설만이 아니라 소설 일반이 그러하다고 볼 수 있을 터이다. 그런데 문제는 욕망의 궁극적 지향점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이에 따라 소설의 지향점, 즉 작가가 소설을 통해 추구하는 생의 의미는 본질적으로 달라지게 된다. 이 점에 유의해 두 작품을 들여다보면 『주생전』의 남자 주인공 주생의 욕망이 다분히 ‘세속적’ 동기와 회구 위에서 작동하고 있는 데 반해 『위생전』의 남자 주인공 위생의 욕망은 반세속적 정념과 동기 위에서 작동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단적으로 말해 주생의 사랑은 부귀나 출세와 무관하지 않음에 반해 위생의 사랑은 부귀나 출세와 무관하다. 이처럼 두 작품이 보여주는 사랑의 의미관련은 전연 다르다.

『주생전』과 달리 『위생전』의 남녀 주인공은 모두 ‘오직’ 서로에 대한 사랑 때문에 생을 마감한다. 『위생전』에서 사랑은 ‘절개’와 분리되지 않는다. 사랑의 內核에 절개가 있으며, 절개가 있기에 사랑은 지고지순하고 절대적이다. 주생의 사랑은 절개와는 별 관련이 없다. 『주생전』 말미에서 ‘나’는 “대장부가 걱정할 일은功名을 이루지 못할까 함이지, 천하에 어찌 또다른 미인이 없겠소?”¹⁷⁾라며 주생을 위로한다. ‘나’는 서술자로서 작자를 일정하게 대변한다. 그러니 ‘나’의 이 말을 통해 작가 의식의 일단을 헤아려볼 수 있다.

요컨대 『주생전』이 보여주는 ‘의미’나 작가의식은 『위생전』이 보여주는 ‘의미’나 작가의식과 본질상 다르다고 판단된다. 어떤 의미에서 『위생전』의 작자는 생의 의미 및 전망과 관련해 『주생전』의 작자에게 심각한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볼 때 『주생전』의 작자는 『위생전』의 작자일 수 없고, 『위

17) 박희병 標點·校釋, 2007 『韓國漢文小說 校合句解』(제2판), 소명출판, 280면. “大丈夫所憂者, 功名未就耳, 天下豈無美婦人乎?”

『주생전』의 작자는 『주생전』의 작자일 수 없다.

둘째, 작품의 종결 방식에서.

『주생전』은 남녀 주인공의 죽음으로 종결되지 않는다. 이와 달리 『위생전』은 남녀 주인공의 죽음으로 종결된다. 『위생전』에서 남녀 주인공의 죽음은 작품 서두에 이미 복선이 깔려 있다. 娥皇과 女英이 湘江에서 순임금을 따라 죽은 일을 언급한 것이 그것이다. 傳奇小說에서 남녀 주인공이 모두 죽는 것은 꼭 아주 특별한 일은 아니다. 여주인공이 죽으면 남주인공은 세상으로부터 종적을 감춰 버리거나, 세상에 뜻을 붙이지 못하다가 얼마 안 있어 죽는 사례들을 발견할 수 있다. 『최치원』, 『만복사저포기』 같은 작품이 전자에 해당한다면, 『이생규장전』, 『심생전』 같은 작품은 후자에 해당한다. 『위생전』은 후자의 계열에 속한다.

그렇지만 『위생전』의 종결 방식은 『이생규장전』이나 『심생전』의 그것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 『이생규장전』에서 남주인공은 여주인공의 장례를 치른 후 그리운 마음 때문에 병이 들어 몇 달 만에 세상을 하직한다.¹⁸⁾ 『심생전』의 경우, 남주인공은 여주인공이 죽은 후 문필을 포기하고 무과에 급제한 후 벼슬을 하다가 젊은 나이에 죽는다.¹⁹⁾ 이와 달리 『위생전』에서 남주인공은 여주인공을 그리워하는 마음 때문에 兵營에서 병이 들어 숨을 거두는데, 여주인공은 그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즉각 羅巾으로 목을 매어 자살한다.²⁰⁾

이처럼 『위생전』에서 남주인공이 그리도 쉽게 죽는 것도 특이한 일이라 하겠지만 여주인공이 '즉각' 목숨을 끊는 일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위생전』의 이러한 종결 방식과 죽음에 대한 친근성에는 생에 대한 작자의 가치 태도가 투사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위생전』이 비록 結構는 다소 영성하나 높은 비극성을 모시함은 이에 연유한다. 하지만 『주생전』은 남녀 주인공의 죽음으로 완성되는 이야기도 아니고, 비극성을 정시함으로써 거기에 작자의 생에 대한 태도와 전망을 투사하고 있는 작품도 아니다. 『주생전』과 같은 스타일의 소설을 쓴 작자가 『위생전』과 같은 스타일의 소설을 썼다고 생각하기는 어렵

18) 위의 책, 130면. “既葬, 生亦以追念之故, 得病數月而卒.”

19) 위의 책, 775면. “後生投筆從武舉, 官至金吾郎, 亦早歿而死.”

20) 위의 책, 514면. “蘇女聞其奇, 即以羅巾, 縊其頸而死.”

다. 완전히 다른 지향을 보여주고 있음으로써다.

셋째, 공간적 배경의 표상에서.

『주생전』과 『위생전』은 공간적 배경이 겹친다. 『주생전』에서 주생은 岳陽城에 정박했다가 다시 배를 타고 錢塘으로 들어온다. 그리하여 여기서 배도와 선화를 만난다. 『위생전』에서 위생은 친구와 함께 長沙를 여행하다가 악양으로 가 동정호 남쪽에서 배를 타고 노닌다. 그리하여 악양에서 우연히 蘇娘을 만나게 된다. 이후 배로 돌아온 위생은 술에 취해 전당에 이르게 된다.

이 지리적 동선에서 주목되는 곳은 장사와 악양이다. 『주생전』에서 ‘장사’는 거론되고 있지 않으며, ‘악양’은 단지 遊樂의 공간일 뿐이다. 그러니 거기에 작자의 ‘이념’이나 문제의식이 투사되지는 않는다. 이와 달리 『위생전』에서 ‘장사’와 ‘악양’은 단지 유락적 공간이지만 않고 ‘역사적’ 공간이다. 역사적 공간이기에 거기에 작자의 이념이나 문제의식이 투사된다.

『주생전』과 달리 『위생전』에서 장사와 악양은 湘江에서 죽은 二妃와 汨羅水에 빠져 죽은 굴원의 기억이 호출되는 곳이다. 그래서 위생과 그의 벗은 傷心에 잠기며 강개한 기분이 된다. 위생이 소랑을 만나 사랑을 나누는 일은 이런 감정과 무관하지 않으며, 은밀하게 내적 연관을 맺고 있다.

위생의 사랑이 주생의 사랑과 의미연관을 달리하면서 생에 대한 다른 가치 태도와 전망을 보여주는 것은 그러므로 공간적 배경의 표상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공간적 배경의 표상과 사랑의 의미가 모종의 내적 연관을 맺고 있음은 『주생전』 역시 마찬가지다. 다만 『주생전』에서 공간은 ‘악양’이든 ‘전당’이든 유락적인 것으로 표상되기에 그에 따라 『위생전』과는 사랑의 의미연관이 다르며 생에 대한 가치 태도나 전망 역시 다르다. 이처럼 공간적 배경의 표상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위생전』과 『주생전』은 한 작가의 손에서 나온 작품일 수 없으며, 풍경을 보는 눈, 풍경을 대하는 마음의 지향이 다른 두 작가의 소산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볼 때 『위생전』은 『주생전』을 지은 권필의 작품이 아님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그 작자에 대한 논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 『위생전』을 지은 무명씨는 대체 누구일까?

『위생전』은 시간적 배경이라든가 공간적 배경이라든가 모티프에서 『주생전』과 일치하는 점이 많다. 두 작품 간에는 영향 관계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앞에서 언급했듯 임형택은 『위생전』이 『주생전』의 영향을 받아 창작되었으며 『위생전』이 『주생전』이 창작된 때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시점에 창작되었으리라 보았다.²¹⁾ 이 견해는 수긍할 만하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운영전』의 작자가 成輅라는 사실이 최근 밝혀졌다.²²⁾ 成輅는 권필과 절친한 사이였다.²³⁾ 『위생전』과 『운영전』은 비록 전연 다른 이야기이기는 하나, 작자의 불우감과 소외된 처지가 남녀의 純愛의 사랑을 낳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 남녀주인공이 지조를 대단히 중시한다는 점, 비극적 서사라는 점, 남녀주인공 중 한 사람이 죽은 후 다른 한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점 등이 동일하다. 요컨대 『위생전』과 『운영전』은 사랑의 의미연관 및 사랑에 투사된 생에 대한 가치 태도나 전망이 서로 합치된다. 두 작품이 보여주는 이런 지향과 作風의 동일성은 우연의 일치로만 생각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필자는 『위생전』을 成輅의 작으로 추정한다. 하지만 『위생전』을 성로가 썼다는 실증적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성로는 방외인으로서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은둔적 삶을 살았다. 자신이 쓴 글들도 죽기 몇 년 전에 다 불태워 버렸다.²⁴⁾ 지금 전하는 『石田遺稿』는 성로가 죽은 후 그의 사위가 세상에 남아 있던 성로의 글을 약간 수습해 놓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사정이 이러니 『위생전』을 성로가 지었음을 입증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이에 필자는 크게 다음의 두 가지 점을 논증함으로써 『위생전』의 작자가 성로임을 입증코자 한다.

첫째, 『위생전』과 『운영전』의 작자가 동일인이라는 점. 『운영전』의 작자가 성로임이 밝혀진 만큼 이 점이 논증되면 『위생전』의 작자는 성로가 될 수밖에 없다.

둘째, 『석전유고』에서 확인되는 성로의 어떤 주요한 문학적 면모가 『위생전』

21) 임형택, 앞의 논문, 36면.

22) 박희병, 2020 『『운영전』 작자 고증』 『국문학연구』 42.

23) 위의 논문, 20면 참조.

24) 같은 글, 같은 곳.

에 그대로 나타난다는 점. 『석전유고』에서 확인되는 어떤 ‘특이한’ 문학적 면모가 단지 하나가 아니고 몇 개나 『위생전』에서 똑같이 나타난다면 이는 『위생전』의 작자가 성로임을 뒷받침하는 증거일 수 있다.

2. 『위생전』의 작자를 成輅로 보는 근거

1) 『운영전』과의 관련

(1) 남녀 주인공의 죽음

『위생전』에서 남주인공 위생은 병이 들어 陣中에서 죽는다. 시신을 운구하는 날 부친의 꿈에 위생이 나타나 이리 말한다.

소씨 맥 낭자와는 정을 다 나누지 못했습니다. 살아서는 함께 살지 못했지만, 죽어서는 한 무덤에 묻히고 싶습니다.²⁵⁾

마침내 위생의 상여는 여주인공 소씨가 있는 악주에 도착해 소씨 집으로 향한다. 이 소식을 접한 소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이 대목은 중요하니 원문을 보기로 한다.

蘇女聞其奇，卽以羅巾，縊其頸而死。²⁶⁾

이에서 보듯 여주인공은 소식을 듣자마자 ‘즉각 羅巾으로’ 목을 매달아 죽는다. 한국 전기소설에서 남편이 죽었다는 말을 듣자마자 아내가 즉각 자결하는 것은 『위생전』 외에는 없다. 소씨의 이 급작스런 자살은 常例를 벗어난 것이다. 보통 같으면 죽더라도 남편의 장례를 치른 후 죽거나 탈상은 마친 후 죽을 것이다.

작자는 왜 이처럼 이례적으로 주인공을 얼른 죽게 한 걸까? 소씨의 절의를 부

25) 박희병·정길수 편역, 2007 『(千년의 우리소설1) 사랑의 죽음』, 돌베개, 145면. 이하 『위생전』의 인용은 이 책에 의거한다.

26) 박희병 標點·校釋, 앞의 책, 514면.

짜시킴을 위해서다. 소씨의 절의는 앞에 인용한, 위생이 부친의 꿈에 나타나 한 말과 호응한다. 그러나 소씨만이 아니라 위생 역시 절의가 있다고 할 만하다. 소씨의 부친은 딸과 사위를 九疑山 아래에 같이 묻어 준다. 구의산은 순임금이 죽었다는 곳이다. 이리 본다면 이 작품 서두에서 위생과 그의 벗 장생이 읊은 시에 소상강의 슬픔이 언급된다든가,²⁷⁾ 서술자가 “순임금이 창오에서 세상을 뜨자 두 비도 따라 죽어”²⁸⁾ 운운한 것은 위생 내외의 죽음, 특히 소씨의 殉死에 대한 복선이 되고 있다고 할 만하다.

그런데 작자는 왜 좀 무리한 느낌이 들 정도로 빨리 위생을 죽게 한 걸까? 작자가 이 작품을 창작한 목적은 남녀 주인공의 서로를 향한 변함없는 純正한 마음을 보여주는 데 있었으므로, 그래서 남주인공이든 여주인공이든 얼른 죽게 했을 터이다.

주목되는 것은 「위생전」처럼 이렇게 남녀 주인공을 주저 없이 얼른 죽게 하는 수법이 「운영전」에서도 똑같이 발견된다는 사실이다. 이런 특이한 수법은 한국 전기소설에서 오직 이 두 작품에서만 나타난다.

「운영전」에서 운영은 주군인 안평대군에게서 자신과 김진사와의 사통을 의심하는 말을 듣자 ‘즉각’ 스스로 목숨을 끊고자 한다. 해당 대목의 원문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卽以羅巾，自縊於欄干。²⁹⁾

두 작품에 ‘卽以羅巾’이라는 똑같은 말이 보인다는 사실, 특히 ‘以羅巾’ 앞에 ‘卽’이라는 글자가 있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이 경우 ‘즉’은 즉각성을 의미한다. 죽음에 대한 여주인공의 ‘주저 없는’ 태도가 이 한 글자에 집약되어 있다. 그러

27) 가령 위생이 읊은 시 중의 “소상강의恨 봄바람에 가없는데”(박희병·정길수 편역, 앞의 책, 115면) “초나라 산은 높고 상수는 깊어라”(같은 책, 118면)라는 구절이나, 장생이 읊은 시 중의 “황릉 옛 무덤에 봄빛이 다했네 / 마름은 향기롭고 상수는 푸른데”(같은 책, 117면)라는 구절을 예로 들 수 있다.

28) 박희병·정길수 편역, 위의 책, 116면.

29) 박희병 標點·校釋, 앞의 책, 373면.

니 이는 단순한 우연의 소치라고 하기 어렵다. 안평대군이 또다른 궁녀인 자란으로 하여금 운영의 목숨을 구하게 해 운영의 이번 자결은 다행히 미수로 끝나지만 운영은 뒤에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이 대목은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다.

其夜, 妾以羅巾, 自縊而死.³⁰⁾

‘其夜’라고 한 것은, 이날 낮 안평대군이 운영의 毀節을 알고 刑杖을 갖추어 그 죄를 벌하려 했는데 여러 궁녀들이 운영을 변호하며 화를 누그러뜨려 운영을 죽이지 않고 별당에 가두었기 때문이다. 안평대군의 태도로 보아 운영은 기실 죽음은 면했으며 구차하지만 그럭저럭 생을 영위할 수도 있었을 터이다. 하지만 그녀는 ‘그날 밤’ 바로 자결해 버린다.

본고의 서론에서 언급했듯, 전기소설 중에는 사랑하는 남녀 주인공 중 한 명이 죽으면 다른 한 명도 세상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죽는 것으로 종결되는 작품들이 있다. 그렇기는 하나 곧바로 죽는 경우는 없다. 따라서 「위생전」이 보여주는 여주인공 소씨의 죽음은 ‘유니크’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운영전」의 경우 여주인공 운영이 자결한 뒤 남주인공 김진사는 운영을 위하여 절에 불공을 드린 후 스스로 세상을 하직한다. 해당 대목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그 뒤로 나는 세상사에 뜻이 없어, 몸을 깨끗이 씻고 새 옷으로 갈아입은 다음 조용한 방에 누웠습니다. 나흘 동안 먹지 않다가 한 번 장탄식을 하고는 마침내 일어나지 못했습니다.³¹⁾

김진사의 이 죽음도 ‘유니크’하기는 마찬가지다. 전기소설에서 여주인공이 죽은 다음 남주인공이 세상에 마음을 붙이지 못하고 배회하다가 결국 병으로 죽거나 일찍 세상을 뜨는 경우는 있어도³²⁾ 「운영전」의 김진사처럼 스스로 목숨을

30) 위의 책, 379면.

31) 박희병·정길수 편역, 앞의 책, 106면.

32) 본고의 서론에서 언급한 「이생규장전」이나 「심생전」이 그런 작품이다.

끓는 사례는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위생전」과 「운영전」의 남녀 주인공들은, 어쩔 수 없이 그리워진 것이든 아니면 스스로 선택한 것이든 간에 죽음에 강하게 이끌리는 경향이 있다는 공통점을 보인다. 죽음에 대한 이 경향성은 작품 스타일상의 문제이기도 하고, 작자의 창작 수법의 문제이기도 하며, 작자의 주제의식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다고 생각된다. 즉 「위생전」과 「운영전」의 작자는 공통적으로 남녀 주인공을 '얼른' 죽게 하는 방식을 통해 자신의 心意傾向과 가치 태도와 세계관을 표현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그렇다면 「위생전」과 「운영전」의 작자가 남녀의 죽음에 투사한 심의 경향이나 가치 태도나 세계관의 내용은 무엇인가? 목전의 세계에 대한 환멸과 실망감, 뜻을 얻지 못한 데서 연유하는 불우감이 그 심의 경향일 것이다. 즉 '나'와 세상의 모순에 대한 감정이다. 이런 심의 경향을 가진 인물은 고립되고 소외된 삶을 살게 마련이다. 바로 이 때문에 특정 대상과의 어떤 내면적 합치감, 생사를 초월해 담보되는 어떤 깊은 존재관련을 갈구하게 된다. 이것이 두 작품에 투사되어 있는 가치 태도일 것이다. 작품에서 이 가치 태도는 오늘날의 관점에서 본다면 '사랑'으로 현상되지만 작자의 내면적 지향이나 생의 태도를 고려한다면 '지조'라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이 경우 '지조'는 불의하고 부당한 세계에 맞서서 자신이 견지하는 가치를 끝까지 고수하고자 하는 의지에 다름 아니다. 이런 심의 경향, 이런 가치 태도에서는 세계에 대한 현세적이거나 낙관적 관점이 아니라 초월적이거나 비관적 관점이 자리잡게 된다. 즉 두 작품에는 낭만적·비극적 세계관이 구현되어 있다고 할 만하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볼 때, 「위생전」과 「운영전」은 비록 그 내용과 디테일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스타일에 있어서건 창작 수법에 있어서건 주제의식에 있어서건 일치점이 확인된다. 이 일치하는 두 작품을 쓴 사람이 동일인이 아니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2) 여성의 정욕에 대한 긍정

『위생전』에는 여성의 정욕에 대한 적극적 긍정이 발견된다.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가) 인간 세상의 즐거움이 깊은 규방에까지 이르지 못하더니, 세상에 태어나 오 늘에야 비로소 그 즐거움을 알게 되었군요.³³⁾

(나) 저는 깊은 규방에서 나고 자라 남녀의 애정사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지만, 여자가 나이 들어 용모가 시드는 것을 비웃는 노래만은 잘 알고 있습니다. 세월은 손살같이 흘러가 젊고 예쁜 얼굴이 그대로 있는 걸 허락하지 않거늘, 봄바람에 버드나무가 낭창대는 집에서 가을비가 오동나무에 내리는 밤에 깊은 방안에 외로이 누워 잠을 청하면서 꽃다운 나이 지나감을 한스럽게 여겼었지요.³⁴⁾

(가), (나)는 위생과 소씨가 처음 관계를 맺은 뒤 소씨가 한 말이다. 여성의 정욕에 대한 적극적 긍정은 『운영전』에서도 나타난다. 주목되는 것은 『운영전』의 여성들에서도 인용문 (나)에 피력된 여주인공의 심사와 유사한 것이 발견된다는 사실이다. 두어 개 예를 들어본다.

(ㄱ) 하필 깊은 궁궐에 간혀 새장 속의 새처럼 꾀꼬리 우는 소리에 탄식하고 푸른 버드나무를 마주하여 한숨을 내쉬는 것이 우리네 신세로구나. (...) 무지한 초목으로부터 지극히 미친한 새들에 이르기까지 음양을 품부받아 서로 즐거움을 나누지 않음이 없지 않나? (...) 꽃 피는 봄이건 달 뜨는 가을이건 외로이 등불을 짝하여 혼을 사그라뜨리고 청춘을 헛되이 보내다가 죽어서까지 공연히 한을 남겨야 하는 걸까.³⁵⁾

(ㄴ) 마음 속 굵이굵이 한이 맺히고 가슴 속 바다에는 원통함이 가득 쌓여, 수놓던 것을 문득 등불에 태우기도 하고 배를 짜다 말곤 북을 던지고 베틀에서 내려 오기도 했으며 비단 휘장을 찢어 버리기도 하고 옥비녀를 부러뜨리기도 했습니다. (...) 바보인 듯 미치광이인 듯 정을 억누르지 못했어요.³⁶⁾

(ㄷ) 비록 한 번도 이불 속의 기쁨을 나눈 적은 없지만 아름다운 낭군의 모습이

33) 박희병·정길수 편역, 앞의 책, 124면.

34) 위의 책, 125면.

35) 위의 책, 67-68면.

36) 위의 책, 78-79면.

황홀하게도 제 눈 속에 어려 있었습니다. 배꽃에 두견새 우는 소리며 오동나무에 밤비 내리는 소리를 서글퍼 차마 들을 수 없었지요.³⁷⁾

(ㄱ)은 여주인공 운영의 지지자인 자란의 말이다. (가)의 ‘깊은 규방’(원문은 ‘深閨’)이 여기서는 ‘깊은 궁궐’(원문은 ‘深宮’)로 바뀌었지만 외부와 격절된 공간이라는 점에서는 서로 통한다. 단 후자는 전자보다 ‘幽閉’의 정도가 더욱 심하다. 그러니 그 공간 속에 있는 여성의 반응 역시 더욱 격렬하다.

유심히 봐야 할 것은, (가)의 ‘즐거움’(원문은 ‘歡樂’)이라는 말과 (ㄱ)의 ‘즐거움’(원문은 ‘歡’)이라는 말은 완전히 동일한 뜻이니, 이른바 ‘슴歡’을 의미한다. (ㄴ)과 (ㄷ)은 운영의 말이다. 억누를 수 없는 욕정과 이성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그 정도에는 차이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나)에서 소씨가 보여주는 심사와 서로 통한다.

또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위생전』과 『운영전』이 격절된 공간 속에 거주하는 여성의 외로운 심사를 표현할 때 두 가지 동일한 자연적 상관물을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나)의 ‘봄 버드나무’는 (ㄱ)의 ‘푸른 버드나무’와, (나)의 ‘가을밤 비 내리는 오동나무’는 (ㄷ)의 ‘밤비 내리는 오동나무’와 완전히 서로 일치한다.

그런데 『위생전』과 『운영전』이 ‘공허’ 여성들의 말을 통해 여성의 정욕을 긍정하는 메시지를 발하고 있다는 사실도 주목되지만, 그보다 더 주목되는 것은 두 작품 모두 남녀 주인공의 부친, 즉 ‘가부장’에 해당하는 인물이 남녀의 정욕을 무시하거나 부정하지 않으며 오히려 이해하는 태도를 보여준다는 사실이다. 가령 『위생전』에서 소씨의 아버지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제 딸아이가 정이 많아 문득 그 미친한 몸으로 꽃이 이슬에 젖듯 달이 구름을 헤치듯, 홀로 지내며 생긴 원한을 떨치지 못하였으니, 모든 것이 이 늙은 어비의 죄입니다. 일이 이미 이렇게 되고 말았으니 후회한들 어찌겠습니까?³⁸⁾

37) 위의 책, 79면.

38) 위의 책, 134면.

위생이 떠난 뒤 소씨는 낙담하여 몸져눕는다. 그 연유를 알게 된 소씨의 부친은 딸을 위해 위생의 부친에게 혼인을 청하는 편지를 보낸다. 위 인용문은 이 편지의 일부다. 통념의 눈으로 본다면 딸은 사족(士族)의 여성이 결코 해서는 안될 치욕스러운 일을 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부친은 딸을 나무라거나 비난하지 않았으며 외려 그것이 자신의 죄라고 말하고 있다. 소씨의 부친만이 아니라 위생의 아버지 또한 비슷한 면모를 보여준다. 다음은 위생의 아버지가 소씨의 부친에게 답한 편지의 한 대문이다.

(제 자식은-인용자) 집에서는 효성스럽고 친구 간에는 신의가 있어 감히 제멋대로 행동하는 일이 한 번도 없었거늘, 이런 광포한 행동을 하게 될 줄이야 어찌 알았겠습니까. 단 남녀가 서로 좋아하는 것은古今의 常情이라, 이미 일이 벌어진 뒤이니 꾸짖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³⁹⁾

이에서 보듯 위생의 부친 역시 자식의 '광포한 행동'을 꾸짖기보다는 그것을 이해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위생의 부모는 위생이 소씨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병이 들어 죽을 지경에 이르자 위생에게 캐물어 그 연유를 알게 됐는데, 급기야 눈물을 흘리며 “우리가 그런 사정을 일찍 알았다면 너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겠느냐”⁴⁰⁾라고 말한다. 자식이 범한 일을 치욕스런 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이해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인용문 중 짙게 표시한 “남녀가 서로 좋아하는 것은古今의 常情이라” (원문은 ‘男女相感, 古今之常情’⁴¹⁾)는 말은 남녀의 정욕이 인간 본연의 자연스런 욕구임을 인정하는 발언이다. 남녀의 정욕에 대한 긍정은 일찍이 鮮初 김시습에 의해 창작된 『이생규장전』에 이미 보인다. 다음이 그것이다.

가만히 생각건대 남녀가 서로 감응함은 일반적으로 인간에게 있어 지극히 중요한 일입니다.⁴²⁾

39) 위의 책, 138면.

40) 위의 책, 133면.

41) 박희병 標點·校釋, 앞의 책, 509면.

42) 필자가 새로 번역했다.

원문은 “竊念男女相感, 人情至重”⁴³⁾으로, 여주인공 최씨가 부모에게 고한 말이다. 최씨는 이생과 몰래한 사랑이 여의치 않자 그만 병이 나 몸져눕는다. 괴이히 여긴 부모는 최씨를 추궁해 그 연유를 알게 된다. 이에 딸을 달랜 후 이생의 집에 매파를 보낸다.

선행연구에서 지적되었듯 「위생전」에는 「이생규장전」의 영향이 확인된다.⁴⁴⁾ 「위생전」의 ‘男女相感, 古今之常情’이라는 말은 「이생규장전」의 ‘男女相感, 人情至重’이라는 말과 통한다.⁴⁵⁾ 이리 본다면 「위생전」에 남녀의 정욕을 긍정하는 말이 나옴은 소설사상 전연 새로운 것은 아니다. 하지만 따로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 「이생규장전」에서 남녀의 정욕을 긍정하는 언술은 여주인공 최씨를 통해 발화된다. 비록 최씨의 부모는 「위생전」의 소씨의 부모나 위생의 아버지처럼 자식을 일절 나무라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위생의 아버지처럼 남녀의 정욕을 긍정하는 발화를 하고 있지는 않다. 이는 음미되어야 할 중요한 차이이다. 작품내적으로 남녀의 정욕에 대한 ‘가부장의 인식’을 한쪽은 보여주지 않는 데 반해 다른 한쪽은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위생전」은 남녀의 욕망에 대한 문제의식에 있어 「이생규장전」을 계승하되 새로운 진전을 이룩한 면이 있다고 할 만하다.

이쯤에서 다시 「위생전」과 「운영전」의 관계에 대한 논의로 돌아가자. 방금 살펴본 「위생전」에서는 남녀 주인공의 ‘가부장’이 남녀의 정욕을 승인하는 태도를 보여준다. 그렇다면 「운영전」의 ‘가부장’은 어떠한가? 「운영전」에서 ‘가부장’에 해당하는 인물은 운영을 비롯한 10명 궁녀의 주군인 안평대군이다. 안평대군이 작품 서두에서 한 다음 발언은 남자와 여자에 대한 자신의 인식을 보여준다 할 만하다.

하늘이 재주를 내리시매 어찌 남자에게만 넉넉하고 여자에게는 인색하게 하셨을 리 있겠느냐? 지금 세상에 문장으로 이름을 내세우는 이들이 적다고는 할 수 없으나 모두 그만그만한 수준이어서 우뚝 빼어난 이가 없구나. 너희들은 분발하도록 해라!⁴⁶⁾

43) 위의 책, 124면.

44) 임형택, 앞의 논문, 6면.

45) 이 점은 일찍이 임형택, 위의 논문, 8면에서 지적된 바 있다.

이 발언을 통해 안평대군이 적어도 인간의 타고난 재능에 관한 한 남녀는 근본적으로 차등이 없다고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대단히 놀라운, 진보적인 인식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안평대군은 여성의 정욕에 관해서는 어떤 인식을 갖고 있었는가? 이 점을 보여주는 안평대군의 발언은 발견되지 않는다. 그렇기는 하나 여성의 정욕을 적극적으로 긍정하는 궁녀들의 발언에 대한 그의 태도와 사통죄를 범한 운영에 대한 그의 최종적 처분에서 이 문제에 대해 그가 어떤 인식을 가졌던가를 유추할 수는 있다.

안평대군은 운영이 김진사와 사통한 것을 알고 뜰에다 형장을 벌여 놓고 운영을 포함한 西宮의 궁녀 다섯 사람을 벌 주려 한다. 조선시대 법률에서 外人과 간통한 궁녀는 남녀 모두 즉각 斬刑에 처하게 되어 있다.⁴⁷⁾ 그러나 안평대군이 격노하여 “곤장 숫자를 세지 말고 죽을 때까지 치도록 하라”⁴⁸⁾고 명령한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곤장을 맞기 전에 다섯 사람은 안평대군에게 供招를 바쳐 심중의 말을 아뢰다. 은섬은 “남녀의 정욕은 음양에서 부여받아 귀천을 막론하고 사람이려면 누구나 가지고 있음”⁴⁹⁾을 말하고, 자란은 “저희는 모두 여항의 천한 계집들로, 아버지는 순임금이 아니요 어미는 아황과 여영이 아니니 남녀의 정욕이 어찌 없을 수 있겠습니까”⁵⁰⁾라면서 “김진사로 하여금 운영을 얻게 하여 두 사람의 맺힌 원한을 풀어 주신다면 주군의 적선하심이 그보다 클 수는 없을 것”⁵¹⁾이라고 말한다.

법률적 관점에서 본다면, 이들의 이런 하소연은 모두 쓸데없는 말이며 오히려 안평대군을 더욱 격노하게 만드는 말일 수 있다. 하지만 안평대군은 자란의 공초를 보고는 노기를 다소 누그러뜨렸다. 그리하여 소옥이 울며 꿇어앉아 “제 목숨을 끊고 운영을 살려 주소서”⁵²⁾라고 간청하자 노기가 점점 풀어져 운영은 별

46) 박희병·정길수 편역, 앞의 책, 36-37면.

47) 『續大典』 刑典 「姦犯」 참조. 이 점은 정길수, 2009 「『운영전』의 메시지」 『古小說 研究』 28, 82면에서 지적된 바 있다.

48) 박희병·정길수 편역, 앞의 책, 99면.

49) 같은 책, 같은 곳.

50) 위의 책, 100면.

51) 위의 책, 101면.

당에 가두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풀어 주었다. 안평대군의 이런 반응은 상계에서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것이다. 그렇다면 안평대군은 왜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일까? 은섬과 자란 등의, '남녀에게는 모두 정욕이 있다', '우리가 궁궐에 유폐되어 인간의 즐거움을 알지 못한 채 얼마나 외롭고 슬픈지 아느냐'라는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안평대군은 궁녀의 정욕을 이제서야 '인식'하게 된 셈이다. 그러니 안평대군은 궁녀들의 절규를 통해 기왕에 갖고 있던 여성의 재능에 대한 인식에 더해 여성의 정욕에 대해서도 인식을 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을 터이다.

그러므로 적어도 「운영전」의 이 대목에 유의한다면 「운영전」에 등장하는 '가부장' 역시 「위생전」과 마찬가지로 여성의 정욕을 부정하거나 사갈시하지 않고 그것을 수긍하고 이해하는 태도를 보여준다 할 만하다. 안평대군은 궁녀들의 아버지는 아니다. 그러니 소씨나 위생의 아버지가 자식에게 보여준 것과 같은 태도를 기대할 수는 없다. 그렇기는 하나 「운영전」의 안평대군은 여성의 정욕을 수긍하는 태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위생전」의 소씨 아버지나 위생 아버지와 통하는 바가 없지 않다고 여겨진다. 전연 다른 상황, 전연 다른 여건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작품의 가부장이 이런 상통점을 보여주는 것은 우연의 소치로 생각하기 어려우며, 두 작품이 여성 정욕의 긍정에 있어서 남다른 확고한 '사상'을 지닌 한 작가의 손에서 빚어졌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3) '飛去落誰家'와 '飛去落巫山'

「위생전」에는 위생이 어찌다 소씨의 집에 들어가 소씨를 훑쳐보는 장면이 나온다. 다음이 그것이다.

(위생이-인용자) 목을 빼 바라보니 백일홍 아래 붉은 연등이 하나 걸려 있고, 그 아래에 미인 한 사람이 있었다. 나이는 열일곱이나 열여덟쯤으로 보였는데, 가녀리면서 아름다운 모습이 선녀 같아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듯싶었다. 여인은 꽃가지를 하나 꺾어 든 채 누각에 머리를 기대고 시 한 수를 읊었다.⁵²⁾

52) 위의 책, 102면.

소씨가 읊은 시는 다음과 같다.

외로운 그림자 길이 달을 어여뻐 여기나
 몸은 꽃처럼 가볍지 않구나.
 바람 따라 흐르는 일만 점 향기
 날아가 뉘 집에 떨어지는고.
 影子長憐月, 身輕不似花.
 隨風香萬點, 飛去落誰家.⁵⁴⁾

이 시의 절구 ‘飛去落誰家’는 당나라 시인 宋之問이 지은 『有所思』라는 시의 제2구에서 따온 말이다. 『유소사』의 앞부분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낙양성 동쪽의 桃李花
 날아오고 날아가 뉘 집에 떨어지는고.
 깊은 규방의 아녀자는 얼굴을 애석히 여겨
 떨어지는 꽃 보며 부질없이 길이 탄식하네.
 洛陽城東桃李花, 飛來飛去落誰家.
 幽閨兒女惜顏色, 坐見落花長歎息.⁵⁵⁾

『유소사』는 7언고시 長篇으로, “세상의 변화가 무상하여 노소가 서로 교체하므로 슬퍼하고 탄식하는 마음을 부친”⁵⁶⁾ 시이다. 즉, 시간 속에서 變轉하며 늘어 사라져가는 인생에 대한 슬픔과 무상감을 토로한 시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꼭 젊은 여성의 相思之情을 읊은 시는 아니다. 이와 달리 소씨의 이 시는 5언 절구로서, 이성을 그리워하는 마음과 자신의 외로운 심사를 읊은바, 『위생전』의 서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독자들은 이 시를 통해 소씨의 내면을 엿보게 되며, 숨어서 소씨를 엿보고 있던 위생 역시 이 시를 통해 소씨의 심리적 정황을 알게 된다. 이렇게 본다면 이 시는 『위생전』의 서사를 다음 단계로

53) 위의 책, 122면.

54) 위의 책, 122면; 박희병 標點·校釋, 앞의 책, 500면.

55) 원문은 『古文眞寶』 권6 참조.

56) 같은 책, 같은 곳. “此篇謂‘世變無常, 老少更相禪代, 深寓慨歎之感.’”

이끄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고 할 만하다.

주목되는 것은 「운영전」 중 운영이 지은 시에 송지문 시의 제2구가 똑같이 차용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해당 시는 다음과 같다.

멀리 푸른 안개 자세히 바라보다가
미인은 깃 짜는 걸 그만두누나.
바람 맞으며 홀로 서글퍼하네
날아가 巫山에 떨어지리니.
望遠青烟細, 佳人罷織紉.
臨風獨惆悵, 飛去落巫山.⁵⁷⁾

안평대군은 궁녀 10명에게 靑烟, 즉 푸른 안개를 소재로 시를 지어 보라고 분부한다. 운영의 이 시는 그때 지은 것이다. 안평대군은 10인이 지은 시들에 대해 논평을 하는데, 운영의 시는 이리 평했다.

유독 운영의 시만은 서글퍼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보이거늘 그리워하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다. 준엄히 캐물을 일어로되 그 재주가 아까워 그냥 덮어두기로 한다.⁵⁸⁾

안평대군은 나중에 성삼문에게 이 시들을 보여주는데, 성삼문 역시 운영의 시 중 “바람 맞으며 홀로 서글퍼하네”라는 구절에 입을 그리워하는 뜻이 담겨 있음을 지적한다.

앞에 언급한 소씨의 시 중 “날아가 뉘 집에 떨어지는고”가 꽃향기를 가리켜 한 말이라면 운영의 시 중 “날아가 巫山에 떨어지리니”는 푸른 안개를 가리켜 한 말이다. 이런 차이가 있기는 하나, 이 시구들에는 ‘자유롭게 날아가 어딘가에 떨어지는 것’을 몹시 부러워하는 서정자아의 마음이 피력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완전히 일치한다.

소씨의 시가 이야기의 본격적 전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듯 운영의

57) 박희병·정길수 편역, 앞의 책, 41-42면; 박희병 標點·校釋, 앞의 책, 342면.

58) 박희병·정길수 편역, 앞의 책, 43면.

이 시 역시 이야기의 본격적 전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운영은 바로 이 시 때문에 안평대군에게 그 마음을 들키게 되고, 안평대군의 의심을 받게 된다.

이처럼 소씨의 오언 절구와 운영의 오언 절구는 비록 읊은 소재는 다르나 외로운 심사와 이성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토로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그리고 송지문이 지은 『유소사』의 특정 구절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 역시 동일하다. 뿐만 아니라 두 시가 각각의 작품 내에서 본격적 서사의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는 점도 동일하다. 즉 ‘창작수법’상 상통하는 바가 있다. 이런 점들은 단순한 우연의 소치로 보기 어렵다. 이는 또한 『위생전』과 『운영전』의 작자가 다른데 한 작자가 다른 작자의 작품을 본뜬 결과로 보기도 어렵다. 이런 것까지 이렇게 본뜨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요컨대 두 작품이 한 작가의 손에서 나오지 않았다면 이런 일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2) 『石田遺稿』와의 관련

(1) 남주인공의 재상이 딸 寢所 투입

『위생전』에서 남주인공 위생은 相國의 딸인 소씨의 침소에 투입한다. 한국 전기소설에서 남주인공이 재상가의 집에 몰래 들어가 그 딸의 침소를 범한다는 설정은 이 작품이 유일하다. 상식을 크게 벗어나는 이런 설정은 엉뚱한 상상력이 없고서는 나오기 어렵다. 『주생전』에서도 남주인공 주생은 승상의 딸 선화와 사랑에 빠지지만 이 경우 주생은 선화의 집에 몰래 들어가 선화의 침소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선화의 집에 입주해 그 동생인 국영의 가정교사 노릇을 하다가 선화의 침소로 가 그녀와 사랑을 나눈다. 그러므로 선화는 소씨와 달리 애초 남주인공을 거부하지 않으며 오히려 남주인공이 자신의 침소로 오기를 바라고 있다. 이 점에서 남주인공의 사랑의 대상이 재상가 딸이라는 점은 같으나 사랑이 이루어지는 상황의 설정은 완전히 다르다. 『주생전』과 달리 『위생전』의 설정은 대단히 위험해 보인다. 이 ‘위험한 설정’은 작자의 개성 내지 특이성을 보여준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성로의 문집에, 한 사내가 재상의 소실 방에 탐입해 그녀를 희롱하는 것을 읊조린 시가 보여 주목을 요한다. 시 전문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연소한 羽林郎
호기로운 데다 勇力이 있네.
공공연히 인가에 침입해
尙書의 첩을 희롱하네.
年少羽林郎, 麤豪有勇力.
公然入人家, 調戲尙書妾.⁵⁹⁾

제목은 「俠客行」이다. ‘협객행’은 樂府詩題의 하나로, 俠邪나 연소한 惡少輩의 거리낌 없는 행위를 읊조리는 것이 특징이다.⁶⁰⁾ 그렇기는 하나 이 시처럼 인가에 무단침입해 상서의 첩을 희롱한다는 내용은 유례를 찾기 어렵다. 그러나 시인의 일탈적 상상력을 보여준다고 할 만하다.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시인의 상상력이 「위생전」 작자의 상상력과 통한다는 사실이다.

「위생전」과는 경우가 좀 다르지만 ‘위험한 설정’은 「운영전」에서도 발견된다. 남주인공 김진사가 운영과 사랑을 나누기 위해 몰래 담을 넘어가 운영의 침소로 가는 것이 그것이다. 일종의 목숨을 건 행위다.

「위생전」의 위생 역시 소씨의 침소에 탐입했을 때 이 일이 자신의 목숨이 달린 대단히 위험한 행위라는 것을 다음에서 보듯 자각하고 있었다.

여인이 거칠게 저항하자 위생은 다급하여 어쩔 줄을 몰랐다. 몸을 돌려 빠져나갈까 생각해 보았지만, 이미 독 안에 든 쥐 신세인지라 달아날 길이 없었다. 가문에 치욕을 안기기에 이른다면 어차피 죽기는 마찬가지라 생각하고 어떻게든 여인의 뜻을 꺾어 보리라 마음먹었다.⁶¹⁾

이상의 논의를 통해 알 수 있듯, 성로의 시에서 확인되는 常度を 넘어서는 상

59) 成輅, 『石田遺稿』上, 2b 「俠客行二首」의 제2수.

60) 이 점은 박희병, 앞의 논문, 52면 참조.

61) 박희병·정길수 편역, 앞의 책, 123면.

상력은 『위생전』의 어떤 설정과 통하며, 나아가 『운영전』의 어떤 설정과도 통하는 바가 없지 않다고 여겨진다.

(2) 악부풍의 시와 闋怨詩

『위생전』에는 악부풍의 시가 많이 보인다. 작품 서두에는 위생과 그의 벗 장생의 시가 여러 편 제시되어 있다. 그 중 한들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가)

푸른 마름 향기롭고 강물은 가득한데
작은 배 하나 동정호 물결을 흔들며 가네.
소상강의 恨 봄바람에 가없는데
새 노랫말 만들어 뱃노래를 불러 보네.
草綠蘋香江水多, 蘭舟搖下洞庭波。
春風無限瀟湘意, 收拾新篇入棹歌。⁶²⁾

(나)

竹枝詞 가락 끊어지자 저녁 안개 깔리는데
黃陵 옛 무덤에 봄빛이 다했네.
마름은 향기롭고 湘水는 푸른데
楚나라 산에는 자고새만 우짖어라.
竹枝詞斷暮煙低, 春盡黃陵古墓西。
香滿白蘋湘水錄, 楚山惟有鷓鴣啼。⁶³⁾

(가)는 위생이, (나)는 장생이 읊은 시다. 이 시들은 竹枝詞의 풍이 짙다. 죽지사는 악부시에 속하며 7언 절구의 형식을 취한다. 공교롭게도 (나)에서는 죽지사가 언급되고 있기도 하다.

한편 소씨는 戰場으로 떠나는 위생과 작별하는 자리에서 아이중으로 하여금 『採蓮曲』 3수를 노래 부르게 하는데, 그 제3수는 다음과 같다.

비단옷 입은 물 위의 미인

62) 박희병·정길수 편역, 위의 책, 115면; 박희병 標點·校釋, 앞의 책, 496면.

63) 박희병·정길수 편역, 위의 책, 115면; 박희병 標點·校釋, 위의 책, 497면.

연꽃 속에서 작은 배 타고 돌아오누나,
 밤새 바람 불어 강 가득히 그리운 마음인데
 천 리 밖 변방에선 소식이 없네.
 水上佳人金縷衣, 芙蓉花裡小船歸.
 西風一夜滿江思, 千里江關音信稀.⁶⁴⁾

‘채련곡’은 악부 淸商曲의 이름이다. 『석전유고』에는 악부풍의 시가 여럿 보인다.⁶⁵⁾ 「俠客行」(2수), 「艷曲」, 「效古」(4수), 「次香奩韻」(3수), 「香奩體」(3수),⁶⁶⁾ 「老女吟」, 「閨女詞」(10수)⁶⁷⁾ 등이 그것이다. 이 중 「규녀사」의 제1수는 기실 채련곡에 해당한다. 전문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미인이 채색한 배에 오르니
 화장한 얼굴이 푸른 물에 비치네.
 저물녘 동무들이 와
 연꽃 속에서 뱃노래 부르누나.
 연밥 따며 돌아가지 않나니
 해 저물어 서늘한 바람이 이네.
 美人上彩舟, 紅粧映綠水.
 向晚女伴來, 棹歌荷花裡.
 采采不歸去, 日暮涼風起.⁶⁸⁾

64) 박희병·정길수 편역, 위의 책, 141면; 박희병 標點·校釋, 위의 책, 511면. 단, 박희병 標點·校釋, 위의 책에는 이 시 제2구가 “芙蓉花裡小船回”라고 되어 있으며, 이 구절에 대한 각주 182번에서 ‘回’가 “운이 맞지 않지만 그대로 둠”이라고 했다. 선본으로 알려져 있는 저초본 『위생전』에도 이 글자는 박락되어 잘 판독이 되지 않는다. 여기서의 결구의 ‘稀’와 같은 운자인 ‘歸’로 보았다. 임형택 교수도 ‘歸’로 교감한 바 있다. 임형택, 앞의 논문, 46면 각주 62번 참조.

65) 성로가 악부풍의 시를 많이 남긴 것은 그가 이백의 시를 애호했기 때문이다. 이백 시의 특징은 악부시에 있다. 이백은 특히 여성 취향의 악부시를 많이 창작했으니, 채련곡도 그 중의 하나다. 이백의 악부시에 대해서는 진옥경·노경희, 2014 『고풍 악부 가음: 이백 시의 정화』, 역락 참조. 성로가 이백을 혹애했다는 사실은 박희병, 앞의 논문, 36면 참조.

66) 成輅, 『石田遺稿』上, 2b, 2b-3a, 14a, 14b에 각각 실려 있다.

67) 成輅, 『石田遺稿』下, 9b, 17b-18b에 각각 실려 있다.

68) 위의 책, 17b.

뿐만 아니라 『석전유고』에 실린 「술자리에서 취해 미인에게 주다」(座上醉贈美人)⁶⁹⁾라는 시에는 “자리의 미인이 채련곡을 노래하네”(座上美人歌採蓮)라는 구절이 보인다.

한편 주목되는 것은 『석전유고』 所載 악부시 중 여성을 노래한 시의 다수가 閨怨詩라는 사실이다. ‘규원시’는 외로운 처지에 있는 여인의 애환이나 情恨을 노래한 시를 말한다.

조금 전에 언급한 「위생전」의 「채련곡」 3수도 그 내용을 보면 규원시에 해당한다. 이외에도 「위생전」의 남녀 결연 부분에는, 소씨가 떠나간 위생을 그리워하며 읊은 다섯 수의 규원시가 제시되어 있다. 그 제1수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버드나무 한들한들 연못엔 물 가득
 꽃떨기 우거진 속에 피꼬리 지지귀네.
 수심에 相思曲 연주하노라니
 곡조가 괴로워 혼이 나갈 듯.
 楊柳依依水滿池, 百花深處囀黃鸝.
 愁⁷⁰⁾來却奏相思曲, 曲苦琵琶魂斷時.⁷¹⁾

『석전유고』 所載 규원시와 「위생전」 所載 규원시는 그 情調나 意趣에서 상통하는 바가 많다.

끝으로, 두 텍스트에서 발견되는 같은 詩語에 대해 간단히 짚고 넘어가기로 한다.

『석전유고』에 실려 있는 「次香奩韻」(3수)이라는 시 제2수의 제1, 2구는 다음과 같다.

69) 『石田遺稿』 上, 18b. 이 시는 이종묵, 2003 「成輅의 삶과 시세계」 『한국한시작가연구』 8, 태학사, 23면에서 처음 언급되었다. 이종묵은 학계에 성로라는 작가를 처음 소개했는데, 성로가 16세기 후반에 가장 풍성한 악부풍의 염정시를 지은 시인이며 그의 이런 시적 경향은 당시 문인들이 추구한 당시풍(唐詩風)과 연관된다고 보았다(이종묵, 위의 논문, 25면).

70) 임형택본에는 ‘悲’로 되어 있으나 저초본에는 ‘愁’로 되어 있다. 저초본을 따른다.

71) 임형택본에는 ‘曲兮瑟瑟今斷絲’로 되어 있으나 저초본에는 ‘曲苦琵琶魂斷時’로 되어 있다. 저초본을 따른다. 번역과 원문은 박희병·정길수 편역, 앞의 책, 135-136면; 박희병 標點·校釋, 앞의 책, 507-508면 참조.

(가)

비단 주렴을 말아 玉鉤에 거니
 깊은 곳에 앉아 있는 미인의 눈썹이 근심스럽네.
 卷却緗簾上玉鉤, 美人深坐翠眉愁.⁷²⁾

『위생전』의 서두에서 위생이 처음 읊은 시의 제3, 4구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나)

향기로운 바람 부는 복사꽃 십리 길
 주렴을 玉鉤에 건 집 몇 집이런가.
 香風十里桃花裡, 多少珠簾上玉鉤.⁷³⁾

(가)의 제1구 ‘緗簾上玉鉤’와 (나)의 제2구 ‘珠簾上玉鉤’는 같은 말이다. 이 말은 중국 五代의 李璟(916-961)이 지은 詞 『攤破浣溪沙』의 首句에 나오는 말이다. 이 사의 前闕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손으로 주렴을 말아 玉鉤에 올리니
 의연히 春恨이 高樓를 에워싸네.
 바람에 떨어지는 꽃은 누가 주인일까?
 생각이 하염없네.
 手卷眞珠上玉鉤, 依前春恨鎖重樓.
 風裏落花誰是主? 思悠悠.⁷⁴⁾

‘玉鉤’는 옥으로 만든 갈고리로, 말라 올린 주렴을 거는 장치다. 首句의 ‘眞珠上玉鉤’는 ‘珠簾上玉鉤’로 되어 있는 本도 있는데, ‘진주’는 주렴을 뜻하니 의미상 차이는 없다.

이경의 이 사에서 유래하는 ‘上玉鉤’라는 말은 고려말 金九容의 시에 이미 보이고 조선 초기 李承召의 시에도 나타난다.⁷⁵⁾ 하지만 문집총간을 검색해 보면

72) 『石田遺稿』 上, 14a.

73) 박희병·정길수 편역, 위의 책, 135-136면; 박희병 標點·校釋, 위의 책, 495면.

74) 『全唐詩』 권889의 ‘南唐嗣主 李璟’ 항목 참조.

75) 『楊若齋學吟集』 『題美人簇子』의 제2구 “翡翠香簾上玉鉤.”; 『三灘集』 권9, 『題畫屏』의

조선 초기 이후 이 말을 시에 쓴 문인은 고작 9명밖에 확인되지 않는다.⁷⁶⁾ 그리고 9명 중 艷情的 脈絡에서 이 말을 쓴 문인은 양사언과 허난설현 단 두 사람뿐이다. 이로 미루어보아 이 말은 조선의 문인들에게 그다지 많이 사용된 시어가 아니며, 특히 염정적 분위기를 자아내는 시어로는 별로 쓰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석전유고』와 『위생전』에서는 이 말이 똑같이 염정적 淸爽의 말로 사용되고 있다. 이는 결코 예사로운 일이 아니며, 『석전유고』와 『위생전』의 작자가 동일인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예나 지금이나 특정한 작가는 특정한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는 경향이 있음으로써다.

(3) 屈原

성로에게는 楚辭에 대한 애호가 있었다. 서호에 거주할 때 읊은 것으로 보이는 다음 시에서 그 점이 확인된다.

한낮 北窓 아래
 맑은 바람 속 베개 높이 베고 자네.
 깨어나 아무 일이 없어
 한가로이 앉아 『이소』를 읊조리네.
 白日北窓下, 淸風睡枕高.
 覺來無一事, 閑坐咏離騷.⁷⁷⁾

『박사헌의 시에 차운한 2수』(次朴士獻韻二首)라는 시에도 다음에서 보듯 초사가 언급되고 있다.

아름다운 시구 홀연 손에 들어와
 귀중한 초사를 더불어 함께 하네.
 佳句忽然來入手, 南金楚辭與之同.⁷⁸⁾

제4수 제2구 “輕揭珠簾上玉鉤.”

76) 생년순으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楊士彥(1517-1584), 吳濼(1540-1617), 許蘭雪軒(1563-1589), 李惟弘(1567-1619), 姜籀(1567-1651), 宋夢寅(1582-1612), 申濡(1610-1665), 趙秉鉉(1791-1849), 姜潛(1807-1858). 한국고전번역원 고전종합DB(<https://db.itkc.or.kr>).

77) 『偶吟』(『石田遺稿』上, 3b).

상대방이 새로 지은 시를 ‘귀중한 초사’라고 칭찬하고 있는데, 칭찬의 말에 하필 ‘초사’가 거론되고 있음이 주목된다.

서호 시절 성로는 ‘세상의 어지러움’과 ‘타락한 世道’⁷⁹⁾ 때문에 憂世之心과 慷慨之心이 깊었다. 그래서 시에서 “단지 세상을 걱정하는 마음이 있을 뿐”(只有憂世心)⁸⁰⁾이라고 읊기도 하고, “흰 머리에 길이 『梁甫吟』 읊은 지 오래고 / 벽 사이에는 부질없이 玉龍刀가 걸려 있네”(白首長吟梁甫久, 壁間空掛玉龍刀)⁸¹⁾라고 읊기도 했으며, “우리 도를 끝내 어디에 기탁할꼬 / 외로운 발자취 이미 노닐을 끊었네 / 도연명의 술 취함을 스스로 즐기나 / 되려 賈生의 근심에 부끄럽구나”(吾道終何託, 孤蹤已絕遊. 自甘陶令醉, 還愧賈生憂)⁸²⁾라고 읊기도 했다. 『양보음』은 악부 楚調曲의 이름으로, 제갈량이 즐겨 부른 것으로 전해진다.⁸³⁾ 그러니 성로가 ‘양보음’과 ‘옥룡도’를 말한 것은 자신을 은거해 있는 志士에 견준 것이라 할 것이다. ‘가생’은 西漢의 賈誼를 말한다. 그는 文帝 때 太中大夫가 되어 시정의 폐단을 개혁하기 위해 힘썼으나 권신의 시기를 받아 長沙王 太傅로 좌천되었다. 그는 이때 『弔屈原賦』라는 유명한 글을 지었다. 굴원이 장사 인근의 멱라수에 투신해 죽었기 때문이다. 가의는 이 글에서 자신의 불우한 신세를 굴원에 가탁했다. 방외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성로는 도연명처럼 늘 술에 취한 채 “輕世肆志”⁸⁴⁾했으나 심중에는 가의와 같은 忠憤이 없지 않았다. ‘가생의 근심’ 운운한 것은 이 때문이다. 성로는 가난했지만 세상과 타협하거나 지조를 굽히거나 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뜻을 고수했다. “마음 씀이 서리나 눈 같아 가난을 근심치 않네”(用心霜雪不憂貧)⁸⁵⁾라는 말에서 그 점을 알 수 있다. 이리 본다면 張維가 『石田先生祭文』에서 “선생은 굴원과 가의의 강개함이 있었으며”, “世道

78) 『次朴士獻韻二首』(『石田遺稿』下, 14b).

79) 『石田遺稿』下, 11a, 『醉題』“世亂誰知北極高.”; 『石田遺稿』下, 11b, 『寄百忍子李鯤變二首』“世道悠悠曲似句.”

80) 『九月晦夜作』의 제7구(『石田遺稿』下, 17a).

81) 『醉題』의 尾聯(『石田遺稿』下, 11a).

82) 『述懷』의 首聯과 頷聯(『石田遺稿』下, 7b).

83) 『三國志』蜀志 『諸葛亮傳』“亮躬耕隴畝, 好爲梁甫吟.”

84) 『石田遺稿』上, 李景奭, 『石田遺稿序』.

85) 『書懷』의 제2구(『石田遺稿』下, 9a).

에 대한 마음을 잊지 않았다”⁸⁶⁾라고 한 것은 정곡을 얻은 말이라 하겠다.

『위생전』에서는 서두에 굴원이 언급되고 있다. 이 때문에 글의 분위기가 자못 비감하다. 다음은 서술자의 말이다.

아아! 초나라는 슬픔의 땅이다. (...) 『이소』를 읊자 떡라수의 물결이 울었으니,
이는 굴원의 충성스런 혼령이 아닌가!⁸⁷⁾

다음은 장생의 말이다.

나는 본래 평생 강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일세. 옛글을 볼 때마다 눈물을 흘렸거
늘, 오늘 여기 와 보니 슬픔을 견딜 수가 없군.⁸⁸⁾

그리고 장생은 시 두 수를 짓는데 다음은 그 제2수다.

초나라 나그네 배 띄워 저녁 원숭이 우는 소리 들으며
십 년 봄풀 보면서 굴원을 추억하네.
다정도 하구나 소상강에 뜬 조각달이여
물고기 배 속의 충혼을 비추어 주니.
楚客縱船聽暮猿, 十年芳草憶王孫.
多情一片瀟湘月, 曾照江魚腹裡魂.⁸⁹⁾

위생 역시 다음의 시구에서 보듯 굴원을 추념하는 마음을 읊고 있다.

봄바람 일고 마름은 푸르니
옛사람 생각해 잊지 못하네.
春風起兮渚蘋青, 懷古人兮不能忘.⁹⁰⁾

86) 『石田遺稿』下, 張維, 『石田先生祭文』“先生有屈賈之忼慨.”: “不忘情於世道.”

87) 박희병·정길수 편역, 앞의 책, 116면.

88) 위의 책, 117면.

89) 위의 책, 118면; 박희병 標點·校釋, 앞의 책, 497면.

90) 박희병·정길수 편역, 위의 책, 118-119면; 박희병 標點·校釋, 위의 책, 498면.

이상에서 보듯 「위생전」은 그 서두 부분에 이상하리만치 굴원에 대한 애도의 정을 표나게 드러내 놓고 있다. 본고의 제3장에서 검토되지만, 작자가 공간적 배경을 하필 楚 땅-구체적으로는 長沙와 岳陽-으로 설정한 것은 자신과 굴원과의 존재관련을 드러내기 위함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위에 인용된 서술자의 말, 장생의 말, 장생의 시, 위생의 시는 기실 작자의 '내면풍경'의 토대로 읽을 수 있다. 「위생전」은 이런 내면풍경을 뒤로 한 채 위생과 소씨의 사랑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간다. 사랑과 죽음의 이야기가 '은유'가 되는 것은 바로 그 직전에 깔아 놓은 이 내면풍경 때문이다.

그러므로 장생의 “나는 본래 평생 강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일세”(僕本平生慷慨之人也)라는 말에는 작자의 심중이 오버랩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작자는 위생만이 아니라 장생에게도 일정하게 자신을 투사해 놓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석전유고』의 작자와 「위생전」의 작자는 굴원과의 깊은 존재관련이라는 심상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될 합치를 보여준다.⁹¹⁾ 두 텍스트의 작자가 같기에 이런 합치가 나타났다고 할 것이다.

3. 「위생전」의 창작 동기와 소설사적 계보

앞 장의 논의를 통해 「위생전」의 작자가 성로임이 입증되었으므로 여기서는 「위생전」의 창작 동기와 소설사적 계보를 일별하기로 한다.

「위생전」은 두 소설의 영향이 눈에 띄게 확인된다. 하나는 김시습의 「이생규장전」이고 다른 하나는 권필의 「주생전」이다. 「위생전」에는 「이생규장전」을 읽은 영향으로 추정되는 표현상의 합치나 유사성이 상당수 발견된다. 이런 점은 선행연구에서 이미 지적된 바 있다.⁹²⁾ 하지만 이런 표면적 영향보다 더 주목해야 할 점은 「위생전」이 「이생규장전」의 미학적 및 가치적 지향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91) 참고로 말해, 『석주집』과 「위생전」 간에는 이런 합치가 발견되지 않는다.

92) 임형택, 앞의 논문, 30-32면; 鄭珉, 앞의 논문, 299면.

『이생규장전』은 남녀의 사랑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남녀의 사랑 자체를 말하기 위해 지어진 소설은 아니다. 작자가 이 작품을 통해 궁극적으로 묻고 확인하고자 한 바는 인간의 삶에서 ‘절의’란 무엇인가, 그것은 왜 추구되어야 하며, 왜 가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 물음을 묻고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 두 남녀의 지고한 사랑이 선택되었다. 이 점에서 『이생규장전』에서 사랑은 작자의 생에 대한 지향과 가치 태도를 말하기 위한 ‘은유’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바로 이것이 『이생규장전』의 미학적·가치적 지향이다.

『위생전』 역시 남녀 주인공의 사랑은 작자의 생에 대한 지향과 가치 태도를 말하기 위한 은유에 해당한다. 작자는 이 은유가 혹 정당하게 이해되지 않거나 오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작품의 서두에 약간의 복선을 심어 놓고 있다. 楚 땅을 작품의 배경으로 설정해 순임금과 아황·여영의 옛일과 떡라수에 빠져 죽은 굴원의 옛일을 슬피 회고하고 있음이 그것이다.

여기서 잠시 따지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 장생이 아황·여영과 굴원을 弔問하는 시를 짓자 위생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자네 시가 너무도 처량하고 괴로워 마음이 한층 슬퍼지는군. 오늘처럼 피꼬리 울고 꽃 좋은 아름다운 날에 취토록 마시며 즐기면 그뿐인 것을, 옛사람을 조문하며 마음 상하면서 공연히 하루의 기쁨을 놓쳐서야 되겠는가.⁹³⁾

그렇다면 주인공 위생은 장생처럼 二妃와 굴원을 슬퍼하는 마음이 없고 그저 좋은 풍경, 좋은 시절을 즐기고자 하는 마음뿐이었을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된다. 위생이 위의 말을 한 다음 노래한 다음 시에서 그 점이 확인된다.

巴陵은 동쪽, 악양은 북쪽
초나라 산은 높고 湘水는 깊어라.
죽지사엔 슬픔과 원망이 많고
조각배는 강 물결에 일렁이도다.
봄바람 일고 마름은 푸르니
옛사람 생각해 잊지 못하네.

93) 박희병·정길수 편역, 앞의 책, 118면.

옥 술잔 부딪고 金縷曲을 부르며
 취한 눈 들어 보니 천지가 맑도다.
 巴陵東兮岳陽北, 楚山高兮湘水深.
 竹枝謠兮哀怨多, 蕩蘭槳兮江之波.
 春風起兮渚蘋青, 懷古人兮不能忘.
 擊玉壺兮唱金縷, 醉眼擡兮乾坤清.⁹⁴⁾

이 시를 통해 위생의 마음 역시 장생과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왜 위생은 앞에서처럼 말을 한 걸까? 작자는 두 가지 이유에서 그리 서술한 게 아닌가 추정해 볼 수 있다. 하나는 두 인물이 一色인 것보다 차이가 있는 것처럼 서술하는 쪽이 단조롭지 않다고 생각해서일 수 있고, 다른 하나는 뒤에 이어지는 위생과 소씨의 만남을 고려해서였을 수 있다. 아무튼 위생 역시 장생처럼 초 땅을 이비와 굴원의 기억이 머무는 공간으로 인식하면서 비감을 품고 있었음은 분명하다.

이리 본다면 작자가 「위생전」의 서두에 슬픔으로 표상되는 초 땅이라는 공간의 특성과 二妃와 굴원의 죽음에 대해 장황하게 언급한 것은 뒤에 나오는 위생과 소씨의 사랑 이야기에 어떤 의미연관을 부여하고자 해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게 뭘까? ‘절의’라고 생각된다. 좀 어설피게 처리된 느낌은 있지만 소씨의 죽음은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변치 않는 丹心の 표현이라 할 만하다. 그것은 이비의 죽음과 상동적이다. 뿐만 아니라 크게 보아 「이생규장전」에서의 이생의 죽음과도 相同的이다. 이 점에서 「위생전」은 「이생규장전」의 미학적·가치적 지향을 계승하고 있다.

김시습은 수양대군의 왕위 찬탈이 계기가 되어 평생 방외인으로 살았으며, 이 때문에 심중한 윤리적·정치적 문제의식을 갖고 ‘절의’의 가치를 중시했으며 그에 최고의 의미를 부여했다. 「이생규장전」은 이러한 문제의식의 미적 구현으로서, 생과 세계에 대한 작자의 지향과 태도가 내면화되어 있다.⁹⁵⁾

김시습은 기구한 자신의 삶 때문에 「이생규장전」을 썼고 거기에 절의를 각인

94) 위의 책, 118-119면; 박희병 標點·校釋, 앞의 책, 498면.

95) 이 점은 박희병, 1997 『한국전기소설의 미학』, 돌베개, 243면 참조.

했지만 성로는 뒷 때문에 『위생전』에서 절의를 말하고자 한 걸까? 몇 가지를 짚을 필요가 있다. 첫째, 성로 역시 방외인으로서 살며, 시류나 시속을 거부하는 삶을 살았다는 사실이다. 그는 가난 속에서도 평생 이런 자세와 뜻을 견지했다. 즉 그는 죽을 때까지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믿음과 그로부터 말미암는 생의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 즉 ‘지조’를 지켰다. 지조는 절의와 통한다. 둘째, 성로는 음적으로 벼슬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벼슬을 하지 않았으며 은거의 길을 택했다. 그럼에도 그는 忠憤의 마음을 갖고 있었으며 세상을 걱정하는 강개한 심사를 품고 있었다. 그가 굴원에 친근감을 느꼈던 것은 이 때문이다. 요컨대 그가 지녔던 ‘충의’의 감정은 절의와 연결될 수 있다. 셋째, 성로에게는 비록 약간의 술친구와 벗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는 세상과 불화한 고립적 인간이었다고 해야 옳을 것이다. 이런 존재 방식의 인간은 늘 타자와의 어떤 전일적 합치를 갈구하게 마련이다. 합치감에 대한 이런 존재론적 갈구는 절의의 內面構造와 심미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

성로는 자신의 실존에서 기인하는 이런 내적 요구 때문에 김시습의 소설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으며, 『위생전』에서 ‘절의’를 말하고자 했던 게 아닐까 한다.

이 정도 말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생각되지만 그래도 좀 더 사유의 도약을 감행해 보기로 한다. 필자는 성로가 『운영전』을 지은 주요한 동기의 하나가 수양대군의 왕위 찬탈로 인해 죽은 안평대군과 사육신의 1인인 성삼문을 기억하기 위함임을 지적한 바 있다.⁹⁶⁾ 그렇다면 혹 『위생전』에는 수양대군의 왕위 찬탈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는 걸까? 비록 겉으로 언표되지는 않고 있다 할지라도 ‘微言’으로 혹은 은폐된 방식으로 담겨 있지는 않을까?

『운영전』은 조선에서 사건이 전개되는 소설이고, 『위생전』은 중국에서 사건이 전개되는 소설이다. 그러니 『위생전』에서 수양대군의 왕위 찬탈과 관련된 어떤 언표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중국을 배경으로 한 소설이라 할지라도 ‘微言’으로 혹은 은폐된 방식으로 작자의 뜻을 부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이런 견지에서 추론해 들어가면 우선 『위생전』이 楚의 ‘長沙’라는 공간을 부각시키고 있음이 이상하게 다가온다. 작품은 대뜸 “위생은 친구

96) 박희병, 앞의 논문, 59-61면을 참조할 것.

장생과 더불어 우연히 장사 북쪽 지역을 지나게 되었다”⁹⁷⁾라는 말로써 이야기가 시작된다. 작자는 의도적으로 장사라는 공간을 호출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장사는 어떤 함의를 갖는 공간인가?

『위생전』의 서술자는 “초나라는 슬픔의 땅”⁹⁸⁾이라고 했다. 이 언술에서 ‘초나라’는 ‘장사’로 바꾸어 읽어도 무방할 터이다. 왜냐하면 장생은 위생과 동정호에서 배를 타고 노닐며 “해 저무니 장사의 사람 더욱 아스라한데 / 배에서 바람을 맞으니 애간장이 끊어지네”(日暮長沙人更遠, 臨風腸斷木蘭船)⁹⁹⁾라고 읊조리는데, 이 읊조림 직후 이 언술이 나오기 때문이다. 또한 이 언술이 있는 후 장생은 이리 말한다.

나는 본래 평생 강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일세. 옛글을 볼 때마다 눈물을 흘렸거늘, 오늘 여기 와 보니 슬픔을 견딜 수가 없군. 좋은 술을 따라 고금의 영혼을 불러 보고 싶네.¹⁰⁰⁾

동정호는 장사의 북쪽에 있다. 그러니 장생은 동정호의 배 위에서 남쪽의 장사를 바라보며 위의 시구를 읊었다고 할 것이다. 그가 이 시구를 읊으며 떠올린 ‘고금의 영혼’ ‘고금의 장사 사람’은 구체적으로 누구일까? 작중에서는 오직 이비와 굴원만이 거론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슬픔의 기억이 간직된 공간인 장사의 의미연관은 비단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적어도 성로 당대의 조선 사대부라면 독서를 통한 기본교양에 있어서든 자국의 역사에 대한 기본인식에 있어서든 ‘장사’라는 단어에서 이비나 굴원 외에 ‘賈誼’나 ‘義帝’를 당연히 떠올릴 터이다. 가의는 장사로 좌천되어온 불우한 인물이지만 그럼에도 장사에서 죽은 것은 아니며 다시 중앙으로 돌아가 생을 마쳤다. 그러니 장사에서 ‘죽은’ 인물로 가의가 거론되지 않은 것은 이해합직하다. 그런데 의제는 다르다. 의제는 항우의 강요에 따라 장사의 郴縣으로 가던 중 항우가 보낸 사람에게 의해 죽임을 당했다.¹⁰¹⁾ 유

97) 박희병·정길수 편역, 앞의 책, 113면.

98) 위의 책, 116면.

99) 위의 책, 116면; 박희병 標點·校釋, 앞의 책, 496면.

100) 박희병·정길수 편역, 위의 책, 117면.

방은 의제의 장례를 치렀으며, 제후들과 연합해 항우를 벌하기 위해 진격하였다. 의제를 살해한 일로 인해 항우는 민심과 제후들의 지지를 잃게 되었으며, 이후 유방의 세력은 점차 강성해지고 항우의 세력은 점차 약해져 갔다. 당시 조선의 사대부로서 이 유명한 역사적 사건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러니 조선 사대부들에게 ‘장사’는 굴원이 죽은 공간으로서만이 아니라 의제가 살해당한 공간으로서도 기억 속에 각인되어 있었다고 봄이 옳을 것이다. 게다가 김종직은 「弔義帝文」을 지어 억울하게 죽은 의제를 애도했다. 급기야 이 글로 인해 1498년 무오사화가 일어나 김종직은 부관참시되고 김일손을 비롯한 사림과 인물들이 대거 숙청되었다. 이 글에서 항우가 의제를 살해한 일을 말한 것이 수양대군이 왕위를 찬탈하고 단종을 죽인 일을 暗喩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성로는 명종 5년인 1550년에 출생했다. 무오사화로부터 52년 후다. 그렇다면 16세기 후반 무렵 이제 ‘의제’라는 은유는 조선 문인들의 기억에서 지워져 별 의미를 갖지 않게 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 그렇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임제(1549-1587)가 지은 소설 「원생몽유록」의 다음 시에서 그 점이 확인된다.

강물은 오염하며 끝없이 흘러흘러
내 마음도 길이길이 강물 따라 흐르누나.
살아서는 임금이요 죽어서는 외로운 혼
新나라는 僞王이요, ‘義帝’는 거짓으로 높인 거라네.
고국의 백성들은 항우에게 다 가고
예닐곱 신하만 곁에 남아 내 넋을 맡기네.
江波咽咽兮流無窮, 我懷長長兮與之同.
生爲千乘兮死作孤魂, 新是僞王兮帝乃陽尊.
故國人民兮盡輸楚籍, 六七臣同兮魂庶有托.¹⁰²⁾

“新나라는 僞王이요”는, 王莽이 왕위를 찬탈해 국호를 ‘新’이라고 한 것을 이른다. 「원생몽유록」에는 죽은 단종과 사육신이 등장하는데, 이 시는 단종이 읊은

101) 司馬遷, 『史記』 『項羽本紀』의 다음 말 참조: “乃使使徙義帝長沙郴縣, 趣義帝行, 其羣臣稍稍背叛之. 乃陰令衡山·臨江王擊殺之江中.”

102) 박희병·정길수 편역, 2013 『(千년의 우리소설8) 이상한 나라의 꿈』, 돌베개, 112면; 박희병 標點·校釋, 앞의 책, 170면.

것이다. 이 시를 통해 ‘의제’라는 은유가 16세기 후반에도 계속 통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작중의 하위지가 읊은 시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보인다.

굳센 절개를 벼슬로 더럽히라
가슴 속엔 여전히 고사리 캐는 마음 품었네.
내 한 몸 죽는 것쯤 애석할 것 없거늘
郴에 계신 의제 생각에 통곡할 뿐이네.
壯節寧爲爵祿淫, 含章猶抱採薇心.
殘軀一死何須惜, 痛哭當年帝在郴.¹⁰³⁾

하지만 하위지는 郴이라는 공간만 말했지 ‘長沙’를 말한 건 아니지 않는가? 『원생몽유록』에는 ‘장사’라는 공간에 대한 인식은 없으며 이 점에서 『위생전』과는 다르지 않는가? 혹 이런 반문이 제기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다음에서 보듯 『원생몽유록』에서 침은 장사로 인식되고 있다.

한 서린 긴 강물은 목메어 흐르지 못하고
갈대꽃과 단풍잎엔 우수수 바람이 부네.
이곳이 장사인 건 분명히 알겠는데
달 밝은 이 밤 영령들은 어디서 노니나?
恨入長江咽不流, 荻花楓葉冷颼颼.
分明認是長沙岸, 月白英靈何處遊.¹⁰⁴⁾

의제가 살해된 장사의 郴江은 상수로 흘러들어간다. 『원생몽유록』의 말미에서 자허의 벗 해월거사가

달 밝은 湘水 넓기도 한데
시름 속에 竹枝歌를 듣네.
月明湘水濶, 愁聽竹枝歌.¹⁰⁵⁾

103) 박희병·정길수 편역, 위의 책, 114면; 박희병 標點·校釋, 위의 책, 171면.

104) 박희병·정길수 편역, 위의 책, 108-109면; 박희병 標點·校釋, 위의 책, 168면.

105) 박희병·정길수 편역, 위의 책, 120면; 박희병 標點·校釋, 위의 책, 174면.

라고 읊은 건 이 때문이다. 이 시구는 『위생전』의 앞부분에 제시된 위생과 장생의 시를 연상시킨다. 요컨대 위생과 장생이 ‘상수’와 ‘죽지가’를 거론하며 읊은 시에 담긴 슬픔과 해월거사가 이 시에서 읊은 슬픔은 근본적으로 서로 통한다고 생각된다. 장사를 공간적 배경으로 삼은 『원생몽유록』을 관통하는 감정은 ‘슬픔’인데, 위생과 장생이 동정호에 배를 띄워 상수와 장사를 생각하며 읊은 여러 편의 시가 제시되어 있는 『위생전』의 앞부분을 관통하는 감정 역시 ‘슬픔’이다.

다시 앞에 인용한 장생의 시와 말로 돌아가 보자. 그가 말한 ‘장사의 사람’과 장사의 ‘고금의 영혼’에 義帝는 포함되지 않는 걸까? 작품의 문면 그대로 ‘이비’와 ‘굴원’만이 거기에 포함된다고 봐야 할까? 필자는 그리 보는 데 회의적이다. 장생은 스스로 밝혔듯 ‘강개한 마음’을 지닌 선비가 아닌가? 그러므로 ‘장사의 사람’, 장사의 ‘고금의 영혼’에 억울하게 죽은 의제가 포함되지 않는다면 꽤 이상한 일이다. 그러니 이 부분의 서술에는 뭔가 ‘微言’이 있지 않나 의심된다. 즉 사정상 언표하지 못한, 숨긴 말이 있지 않은가 한다. 그게 바로 ‘의제’가 아닐까.

그렇다면 『원생몽유록』에서는 ‘의제’를 밝혔는데 왜 『위생전』에서는 숨긴 것일까? 임제와 성로는 개성과 처지가 다른 작가이기 때문일 것이다. 임제가 좀 더 직설적인 인간이라면 성로는 상대적으로 좀 더 완곡한 어법을 구사하는 작가가 아니었나 한다. 게다가 임제가 한미한 무인 집안 출신인 것과 달리 성로는 華族 출신이었으며, 그의 從曾祖인 成聃壽는 남효온과 함께 생육신의 한 사람으로 꼽히고, 증조인 成聃命은 김종직의 문인으로 수양대군의 왕위 찬탈과 관련해 지조를 지켜 평생 벼슬하지 않았다. 이에 그치지 않는다. 성로의 三從祖는 다름 아닌 성삼문이었다. 그러니 성로는 임제와 달리 수양대군의 왕위 찬탈과 관련해 말을 극도로 조심해야 할 처지에 있었다고 할 만하다. 그가 『운영전』에서 안평대군과 성삼문에 대한 역사적 기억화를 피하면서도 수양대군이나 그와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일절 ‘언표’하지 않은 것도 아마 이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직접적 언표가 없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다. ‘간접적 언표’도 있을 수 있고, ‘숨어 있는 말’도 있을 수 있다. 텍스트의 해석에서는 눈에 분명히 보이는 직접적 언표보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간접적 언표나 눈에 아예 보이지 않는 숨어 있는 말을 해독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 기존의 『운영전』 연구자들은 이 작품에

丙子士禍에 대한 문제의식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이는 성로가 그만큼 微言과 완곡한 어법을 잘 구사한 작가임을 말해준다.

성로는 임제와 동시대인으로서, 임제의 넷째 동생인 林權과 교분이 깊었으며, 둘째 동생인 林愷과도 교분이 있었다. 그러므로 임제의 「원생몽유록」을 읽었을 가능성이 높다.

앞에 인용된 해월거사의 시구는 위생의 “초나라 산은 높고 상수는 깊어라 / 죽지사엔 슬픔과 원망이 많고”(楚山高兮湘水深, 竹枝謔兮哀怨多)¹⁰⁶와 장생의 “죽지사 가락 끊어지자 저녁 안개 깔리는데 / (...)마름은 향기롭고 상수는 푸르거늘”(竹枝謔斷暮煙低, (...)香滿白蘋湘水綠)¹⁰⁷이라는 시구와 통한다. 게다가 「원생몽유록」과 「위생전」에는 똑같이 초사체의 시가 발견된다. 이것들은 성로가 「원생몽유록」을 읽고 그 영향을 받았음을 보여주는 흔적들로 여겨진다.

「원생몽유록」은 성로의 두 작품 「위생전」과 「운영전」 모두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 「원생몽유록」의 ‘장사’라는 공간 설정은 「위생전」 서두의 ‘장사’라는 공간 설정에 영향을 미쳤고, 「원생몽유록」이 취하고 있는 ‘몽유’ 형식은 「운영전」의 ‘몽유’ 형식에 영향을 미쳤다. 그렇긴 하나 성로는 「위생전」에서는 병자사화에 대한 문제의식을 前面에 드러내지는 않고 잠복시켰으며 다만 위생과 소씨의 사랑과 죽음을 통해 은유적으로 절의를 말함으로써 병자사화에 대한 자신의 감정과 태도를 완곡하게 표출했을 뿐이지만, 「운영전」에서는 병자사화에 대한 문제의식을 어떤 식으로든 드러내면서 그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므로 소설사적으로 볼 때 「위생전」(그리고 「운영전」)은 「이생규장전」과 「원생몽유록」의 계보를 잇는 작품이라 말할 수 있다. 특히 정신사적 측면에서 그러하다.

여기서 혹자는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위생전」은 「주생전」과 공간적 배경이나 모티프가 유사해 두 작품 사이에 영향 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통설인데 왜 「주생전」은 계보에서 언급되지 않는가?

106) 박희병·정길수 편역, 위의 책, 118면; 박희병 標點·校釋, 위의 책, 498면.

107) 박희병·정길수 편역, 위의 책, 117면; 박희병 標點·校釋, 위의 책, 497면.

기존의 통설은 인정된다. 성로는 권필과 절친한 사이였고 이 때문에 그의 소설 창작에 '전염'¹⁰⁸⁾되어 『위생전』을 창작했다. 두 사람은 전쟁을 같이 겪었으니 이 점에서 경험과 감수성 면에서 통하는 바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권필 소설의 어떤 계기들이 성로의 작품 속에引入되어 있음은 그다지 이상한 일이 아니다. 하지만 그 계기들이 다분히 '외적' 성격의 것이라는 사실이 유의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외적'이라고 한 것은, 그저 서사 전개상의 장치일 뿐 작가의 '의식'이나 '정신적 지향'과 관련된 것이 아님을 말한다. 이 점에서 『위생전』에 차용된 『주생전』의 계기들은 도구적 내지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진다.

주목되는 점은 『위생전』이 외적으로는 『주생전』의 어떤 요소들을 차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내적'으로는 『주생전』의 가치 지향, 『주생전』에 구현되어 있는 生의 지향성에 심중한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이다. 무엇이 그런가? 잠시 장생의 다음 말을 보기로 한다.

자네의 기이한 재주는 江東 땅에서 제일이야. 과거에 급제하여 옥당에서 주옥 같은 글을 짓고, 입신양명해서 세상을 구하고 백성을 편안케 하는 것이 바로 평생의 뜻이었지 않나. 재상 댁의 문을 몰래 엿보고 망령되어 사통하는 죄를 범하고 말았으면서도 정신을 잃어 깨닫지 못하고 제멋대로 행동해 끝내 신세를 망치겠다는 건가? 음란한 남녀가 밀회한다는 추악한 소문은 끝까지 덮기 어려우니, 만일 일이 그 지경에 이른다면 자네 부모님께 치욕을 안겨 드릴 뿐 아니라 가문 전체에까지 재앙이 미칠 걸세. 그러나 조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마음 먹기를 조금만 잘못해도 만사가 돌연 파탄 나는 법이니, 그때 가서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이지. 잘 처신하기 바라네!¹⁰⁹⁾

장생이 위생으로부터 어젯밤 소씨와 만나 사랑을 나누는 일을 듣고는 위생을 꾸짖은 말이다. 친구로서 위생의 '입신양명'을 바라 충고한 것이다. 하지만 위생은 장생의 충고와 달리 입신양명의 길 쪽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입신양명과 어긋난다 할 한 여성에 대한 깊디깊은 사랑이라는 길을 택했다. 위생의 이런 선택은 장생의 말로 대변된 당대 주류 사족층의 사고방식에 대한 거부를 의미한다. 비록 위

108) 필자는 '전염성'이라는 단어를 『「운영전」 작자 고증』, 7면에서 처음 사용한 바 있다.

109) 박희병·정길수 편역, 2007 앞의 책, 129-130면.

생은 비극적으로 삶을 마무리 하지만 작자는 위생의 삶이 시속을 따르는 삶보다 오히려 더 가치 있다는 메시지를 남긴다. 이에는 성로의 실존이 반영되어 있다고 여겨진다. 생에 대한 성로의 이런 관점은 『운영전』에서도 똑같이 표출된다. 가령 하인 특은 김진사에게 “대장부가 죽으면 죽었지, 상사병으로 맺힌 원한 때문에 아녀자가 속을 끓이는 것처럼 잔달게 굴며 천금 같은 몸을 스스로 버린단 말입니까”¹¹⁰⁾라고 말하지만-특의 이 말은 장생이 위생에게 한 충고와 통하는 점이 있다-김진사는 결국 相思의 정 때문에 스스로 생을 마감한다. 하려고만 하면 입신양명의 길을 갈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고 그와 어긋난 길을 택한 것이다. 한 마디로 위생과 판박이다.

그렇다면 『주생전』은 어떠한가? 주생은 처음에 기생 배도에게 마음을 주었지만 지체나 미모가 배도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나은 선화를 알게 되자 변심해 선화와 사랑을 나눈다. 그 뒤 주생은 임진왜란에 참전하는데, 선화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병이 들어 개성의 陣中에 머문다. 이 작품 말미에는 서술자인 ‘나’가 등장해 병이 든 주생에게 이렇게 충고하는 장면이 나온다.

대장부의 근심은 공명을 이루지 못한 데 있을 뿐이오. 천하에 어찌 미인이 또 없겠소?¹¹¹⁾

주생은 이튿날 아침 ‘나’와 헤어질 때 ‘나’에게 거듭 감사를 표하며, “제 얘기는 한바탕 웃음거리에 불과하니 다른 사람에게 전할 건 없어요”¹¹²⁾라고 말한다.

서술자인 ‘나’의 이 말은 작자의 의식의 반영임과 동시에 당대 사족층의 일반적인 사고의 반영으로 읽을 수 있다. 한편 주생은 자신이 ‘나’에게 들려준 배도 및 선화와 사랑의 이야기를 ‘한바탕 웃음거리에 불과’한 것이라 말하고 있다. 이는 그저 한 말로 치부할 수만은 없으며, 주생이 지닌 의식의 일단을 보여준다 할 것이다. 위생이나 김진사라면 이런 투의 말을 하겠는가. 요컨대 『주생전』에서는 주생, 서술자인 ‘나’, 작가 모두가, 사족의 남성에게 입신양명보다 중요한 것

110) 위의 책, 94면.

111) 박희병·정길수 편역, 2010 『(千년의 우리소설6) 끝나지 않은 사랑』, 돌베개, 63면.

112) 위의 책, 64면.

은 없다는 가치 의식을 공유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그러나 「위생전」과는 생에 대한 지향, 가치에 대한 태도를 달리한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볼 때 비록 「주생전」이 「위생전」의 창작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인정해야 할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사적으로 본다면 두 작품은 계보를 달리한다. 적어도 정신사적 견지에서 소설사를 본다면 「위생전」은 「운영전」과 함께 「이생규장전」과 「원생몽유록」의 계보를 잇는 작품으로 평가해야 마땅하다.

4. 맺음말

본고는 「위생전」의 작자가 성로임을 고증하고 곁들여 그 창작 동기와 소설사적 계보를 일별했다. 이로써 성로가 「위생전」과 「운영전」 두 소설을 창작한, 문학사에서 대단히 문제적인 작가임이 밝혀졌다. 그간 「위생전」은 어처구니없게도 권필의 작으로 오인되어 왔고, 「운영전」은 무명씨의 작으로 여겨져 왔다. 성로는 생전에도 방외인으로 이름을 드러내려 하지 않는 삶을 살다가 어느 날 밤 술에 취해 홀연 이 세상을 버렸지만, 죽고 난 뒤에도 지금까지 그 진면목이 알려지지 못했던 것이다. 성로는 도가 높은 인간이었으니, 스스로는 이름 따위가 뭐가 중요한가라고 일소했을지도 모르지만, 우리 후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결코 중요하지 않은 문제가 아니다. 존재의 '이름' 혹은 아이덴티티를 찾아주는 것은 그 자체로 대단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작품은 작가와 연결되어야 비로소 그 온전한 의미가 포착될 수 있다. 그러므로 「위생전」과 「운영전」에 대한 연구는 바야흐로 지금부터 새로 시작되어야 할지 모른다.

성로는 지성사에서 본다면 조선 전기의 김시습과 남효온, 동시대의 임제와 계보상 연결되는 인물이다. 이들은 그 인간적 존재방식이 '방외인'이었다는 공통점이 있는바, 이 점에서 자못 매력적이다. 이처럼 이들은 공유되는 지점이 있지만, 동시에 저마다의 강한 개성과 독특한 '生の 서사'를 보여준다. 그러므로 성로는 앞으로 문제적 작가로서 더 많이 그리고 더 세밀히 연구되어야 하리라 생각한다.

필자는 이 논문을 쓰기 전에 먼저 「운영전」의 작자가 성로임을 고증한 바 있

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방법적으로 「운영전」과 「위생전」의 비교를 통해 「위생전」의 작자를 확정하고자 했다. 하지만 논의가 진행되면서 거꾸로 「위생전」에서 「운영전」의 작자가 성로임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논거가 발견되기도 했다. 이 점에서 이 논문은 또한 필자의 前稿를 보완하는 의미가 있기도 하다고 생각된다.

주제어 : 위생전, 운영전, 이생규장전, 원생몽유록, 성로, 전기소설

투고일(2021. 1. 25), 심사시작일(2021. 1. 28), 심사완료일(2021. 2. 15)

〈Abstract〉

The Author of *Ui'saeng-jeon*

Park, Hee-byoung *

The author of *Ui'saeng-jeon* has been known as Gwon Pil(權驛, 1569-1612) to date. Through in-depth historical research, this paper reveals that the author of *Ui'saeng-jeon* is not Gwon Pil but Seong Ro(成輅, 1550-1615), the author of *Un'yeong-jeon*. By comparing *Ui'saeng-jeon* with *Un'yeong-jeon* and Seong Ro's anthology *Seokjeonyugo*(石田遺稿), this paper proves that Seong Ro is the author of *Ui'saeng-jeon*.

This paper newly discovered one of the important authors in the history of Korean classic novels. Seong Ro, after writing *Ui'saeng-jeon*, seems to have written *Un'yeong-jeon* with greater artistic maturity. In terms of the history of human mind, it can be said that *Ui'saeng-jeon* inherits the legacy of *Yisaenggyujang-jeon*(李生窺牆傳) written by Kim Si Seup(金時習) in the early Joseon Dynasty and *Wonsaengmongyu-rok*(元生夢遊錄) written by Yim Je(林悌) in the late 16th century.

This paper contemplates that *Ui'saeng-jeon* and *Un'yeong-jeon* display similar characteristics in certain aspects, such as the author's unique view of life, perspective toward love, skill of ending the story and spatial setting. Based on the contemplation, this paper reaches the conclusion that the two novels were written by same person. Especially are the facts highlighted that *Ui'saeng-jeon* and *Un'yeong-jeon* contain poems that seem to have been written by a single person, the heroin ends her life by her own hand, and the lust of women is actively acknowledged.

Through this paper, it was newly discovered that Seong Ro who engaged in literary writing in the early 17th century is one of the important figures in the history of Korean classic novels.

Key Words : *Ui'saeng-jeon*, *Un'yeong-jeon*, *Yisaenggyujang-jeon*, *Wonsaengmongyu-rok*, Seong Ro, Jeongi-soseol

* Professor,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 Litera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